

서울말 장단의 사회언어학적 변이에 관한 연구*

- 연령별 변이를 중심으로 -

김선철* 권미영** 황연신***
*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자료연구부
**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Sociolinguistic variation of length in Seoul dialect

Seoncheol Kim*, Miyeong Kwon**, Yeonsin Hwang***

* Department of Bibliographical and Pedagogical Research, National Academy of Korean Language

** Department of Korean Linguistics and Literature, Inha Univ.

*** Department of Linguistics, SNU

sckim@mct.go.kr, umlaut@chol.com, hys74@snu.ac.kr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how what are the sociolinguistic variables of length loss in Seoul dialect. 350 people were inquired to pronounce 40 words. Among the informants, 152 were male, and 198 were female. In terms of their age, 49 were twenties, 70 were thirties, 69 were forties, 71 were fifties, and 91 were above sixties. According to our statistics, 18 words show sociolinguistic variation by age, and sex was not a variable. So we can conclude that Seoul dialect is undergoing length loss by age at least. But we need to enlarge the number of words and informants and we also need to adopt other variables.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서울말의 전모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숫자는 아니지만 350명의 서울말 화자를 대상으로 40개 단어의 장단음 선호도를 사회언어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자 작성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서울말의 장단

음은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구분되지 않아서 결국 기저 장음이 사라지고 기저 단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그런데 이러한 관찰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정명숙·황국정(2000)을 제외하고 실증적으로 검토된 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장단 구분의 소실이 연령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령 이외의 다른 사회언어학적 변수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휘 전체적인 양상인지 아닌지 더 세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가운데에서 본고에서는 성별을 나누지 않은 연령별 변이와 성별을 나눈 연령별 변이를 고찰하였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제보자로 택한 서울말 화자라 함은 제보자 본인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출신이고 부모 모두 역시 서울, 인천, 경기 출신인 사람을 일컫는다.

이번 조사에서 채택한 사회언어학적 변수는 성, 연령이었다. 이에 따라 조사에 응한 남성 제보자는 152명, 여성 제보자는 198명이었다. 연령별 집단은 20대 49명, 30대 70명, 40대 69명, 50대 71명, 60대 이상 91명이었다. 제보자 구성에 대한 요약 정보는 <표 1>에 수록하였다.

* 본 논문은 김선철(2003)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다.
1) 배주채(2003), 李崇寧(1960), 이호영(1996), 정명숙·황국정(2000) 등 참조.

연령 성별	남성	여성	계
20대	14	35	49
30대	32	38	70
40대	28	41	69
50대	24	47	71
60대 이상	54	37	91
계	152	198	350

<표 1> 제보자 구성

조사 대상 어휘 40개는 조남호(2002)에 수록되어 있는 58,438개 가운데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일반 어휘를 검토하면서 제1 음절의 장단이 유동적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의 일부이다. 기저 장단에 대한 판단은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에 기초하였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어휘

가. 기저 장음(28개)

개나리, 검문검색, 검찰, 경복궁, 경품, 김밥, 낱지, 넣으면, 노발대발, 대천, 대학생, 도끼, 도로, 미술, 방송, 비밀비재, 빵고, 빵으니, 산보, 선남선녀, 수학, 영등포, 오뚜방정, 오로지, 우산, 이간질, 장국, 타점

나. 기저 단음(12개)

거리, 놓고, 놓아, 단점, 대전, 미국, 배구, 영화, 요구, 요인, 자본, 장차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어가 포함된 문장을 제보자로 하여금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게 하여 조용한 곳에서 녹음하였다. 조사 대상 어휘가 억양구나 강세구 초두에 와서 장음이 제대로 실현되게끔 여러 번 소리 내어 말하게 한 다음 본인이 자연스럽게 느꼈을 때 녹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반복 청취하며 장단을 구분하여 전사하였고,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많은 수의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단의 성별 연령별 변이를 관찰하는 것이므로 관찰 대상 모음의 절대 길이나 상대 길이를 측정하여 통계처리하지는 않았다.

2. 사회언어학적 변이를 보인 어휘

정명숙·황국정(2000)에서 12명의 화자가 장단 짝을 이루는 48개의 한자어 장단을 어떻게 실현시키고 있는

가를 조사한 결과, 노년층으로 갈수록 장단 구분이 잘 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젊은 층으로 갈수록 장단을 구별하는 어휘의 양이 적어지며 구별 정도도 미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적은 수의 화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밝힌 대로 제보자 수를 대폭 늘려서 기존의 관찰 내용과 연구 성과를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려 하였다.

조사 대상어 40개 가운데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에 장음 표시가 있는 어휘(이후 '기저 장음'으로 약칭함)는 28개이고, 장음 표시가 없는 어휘(이후 '기저 단음'으로 약칭함)는 12개이다. 기저 장음 28개와 기저 단음 12개 가운데 사회언어학적 변이를 보인 단어는 각각 14개, 4개 총 18개였다. 그런데 이 비율은 무의미한데 왜냐하면 조사 대상어가 국어의 어휘 전체도 아니고 어떤 특정 부류에 속하는 것도 아닌 무작위 추출물이었기 때문이다. 즉 14/28, 4/12이라는 수치는 우연의 산물이다. 다만 사회언어학적 변이를 보이지 않은 22개 어휘는 전체 화자의 응답에서 어떤 경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3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사회언어학적인 변이가 관찰된 18개의 어휘에 대해 개별적으로 탐구하고, 이어서 이를 통틀어 볼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인지만을 논하고자 한다. 그런데 성별 연령별 제보자의 숫자가 같지 않으므로 집계된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성별 연령별 선호도 차이를 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없다. 대신 각 소집단 전체 숫자에 대해서 장음 혹은 단음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어떤 어휘의 장음 응답에 있어서 20대 남성이 15/30, 20대 여성이 10/20이라는 수치를 보였다면, 두 집단은 모두 50%라는 장음 선호도를 보여서 이에 관한 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의로 장음을 기준으로 기술 하겠다.

2.1 기저 장음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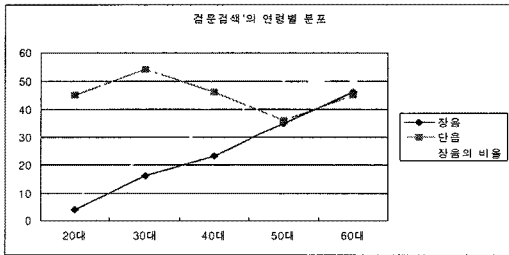
2.1.1 검문검색

'검문검색'은 대구 형식의 4음절 한자어로서 제1 음절과 제3 음절에 기저 장음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관찰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1 음절의 기저 장음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는 단음 응답이 장음 응답보다 많게 답변이 나왔는데 남녀 각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대 집단에서는 단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었는데 높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장음의 비율이 늘어 50대와 60대 연령층에서는 서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점을 쉽게 볼 수 있

도록 <그림1>에 나타내었다. 장음의 비율 곡선이 우상향이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음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그림에서 장음, 단음에 대한 Y축은 응답의 개수이고, 장음의 비율에 대한 Y축은 퍼센트이다).

응답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	여					
장음	124	50	74	4 (0/4)	16 (5/11)	23 (10/13)	35 (13/22)	46 (22/24)
단음	226	102	124	45 (14/31)	54 (27/27)	46 (18/28)	36 (11/25)	45 (3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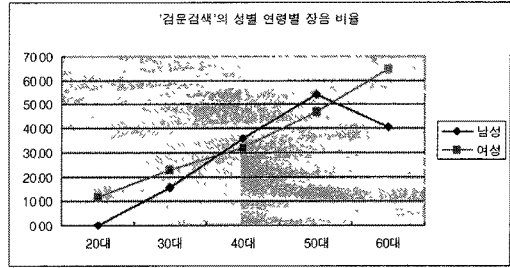
<표 2> '검문검색'의 성별, 연령별 분포



<그림 1> '검문검색'의 연령별 분포

성별을 무시한 연령별 선호도가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그 패턴의 성립에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집단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알기 위해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연령별 선호도 패턴이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 두 집단 중 어느 하나가 연령별 변이가 없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가 급격한 변이를 보이는 모습이라면 성별을 무시한 연령별 변이에 많은 의미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검문검색'의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검문검색'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장음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일관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남성은 60대에서 그 증가세가 꺾인 모습이다. 그런데 그 증가세가 꺾인 폭이 상당히 커서 오히려 여성 60대보다 약 24% 정도가 적은 장음의 비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장음의 비율이 성별로 같지 않아서 20대와 30대, 60대에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여성이 적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 단어의 장단 선호도가 40대를 축으로 하여 성별 격차를 X자 모양으로 보이며, 60대 남성은 전체 경향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 특이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60대 남성의 이러한 응답이 언어적 진실인지 아니면 답변 능력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탐구가 필요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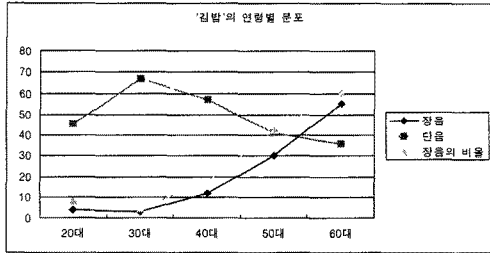
2.1.2 김밥

'김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단음>장음 순서로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 반대의 결과로 수렴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60대에서는 장음>단음 순서로 역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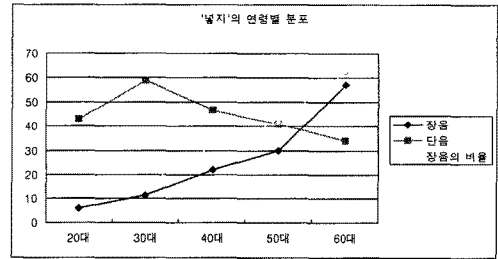
응답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	여					
장음	104	50	54	4 (1/3)	3 (1/2)	12 (4/8)	30 (14/16)	55 (30/25)
단음	246	102	144	45 (13/32)	67 (31/36)	57 (24/33)	41 (10/31)	36 (24/12)

<표 3> '김밥'의 성별, 연령별 분포

2) 본고에서 이르는 장음의 비율이란 전체 응답 중 장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검문검색'에 대한 30대 남성의 선호도는 $(5 \times 100) / (5 + 27) \%$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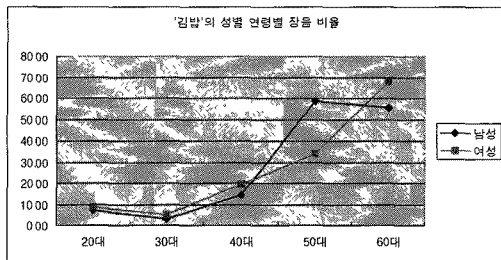


<그림 3> '김밥'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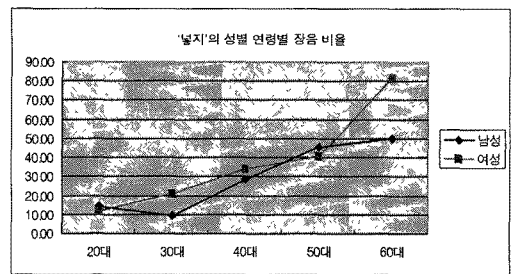
<그림 5> '냉지'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 그래프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전체에 대한 장음의 비율에서 20대가 특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성별 구분에 있어서도 역시 20대가 공통적으로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40대까지는 성별 격차를 보이지 않지만 50대와 60대에서는 성별 격차가 많이 드러났고, '김밥검색'과 유사한 60대 남성의 특이한 선호도가 눈에 띈다.



<그림 4> '김밥'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 그래프는 <그림 6>이다. 여기에서는 20대 남성이 전체 경향과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60대 남성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50대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하였으나 여전히 선호도의 증가세가 비례적이지는 않았다. 30대와 60대에서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는데, 60대 여성의 선호도가 여성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갑자기 상승한 점이 특이하다.



<그림 6> '냉지'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1.3 냉지

'냉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단음>장음 순서로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 반대의 결과로 수렴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60대에서는 장음>단음 순서로 역전이 되었다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26	51	75	6 (2/4)	11 (3/8)	22 (8/14)	30 (11/19)	57 (27/30)
단음	224	101	123	43 (12/31)	59 (29/30)	47 (20/27)	41 (13/28)	34 (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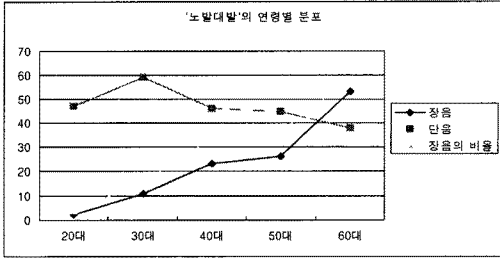
<표 4> '냉지'의 성별, 연령별 분포

2.1.4 노발대발

'노발대발'에 대해서도 60대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단음>장음' 순서로 답변이 나왔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장음의 비율이 비례적으로 늘어나서 <표 5>의 장음의 비율이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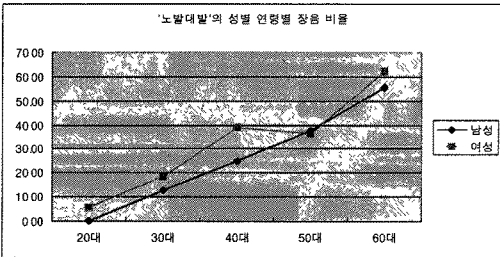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15	50	65	2 (0/2)	11 (4/7)	23 (7/16)	26 (9/17)	53 (30/23)
단음	235	102	133	47 (14/33)	59 (28/31)	46 (21/25)	45 (15/30)	38 (24/14)

<표 5> '노발대발'의 성별, 연령별 분포



<그림 7> '노발대발'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 그래프는 <그림 8>이다. 여기에서는 50대 여성이 전체 경향과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60대 남성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50대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이면서도 선호도의 증가세가 비례적이었다.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가 보였는데 4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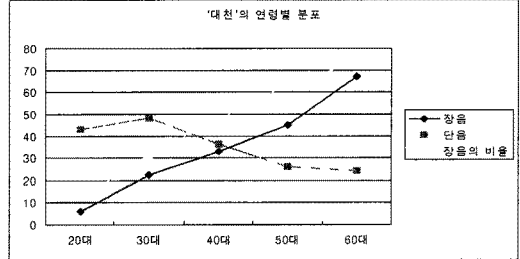
<그림 8> '노발대발'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1.5 대천

'대천'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두 응답의 수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연령별로는 20, 30대 집단에서 단음 > 장음의 결과를 보였고, 50대와 60대 집단에서는 그 반대로 장음 > 단음의 결과를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예들과 마찬가지로 연령층이 높아가면서 장음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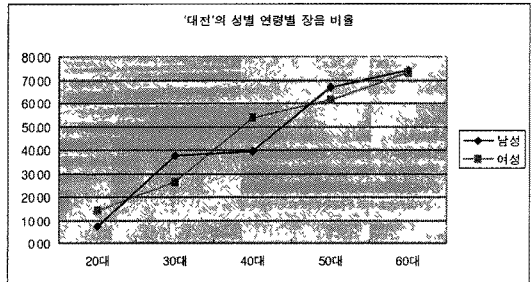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73	80	93	6 (1/5)	22 (12/10)	33 (11/22)	45 (16/29)	67 (40/27)
단음	177	72	105	43 (13/30)	48 (20/28)	36 (17/19)	26 (8/18)	24 (14/10)

<표 6> '대천'의 성별, 연령별 분포



<그림 9> '대천'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 그래프는 <그림 10>이다. 여기에서는 60대를 제외한 각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가 보였으며, 남성의 선호도가 여성의 것에 비해 덜 비례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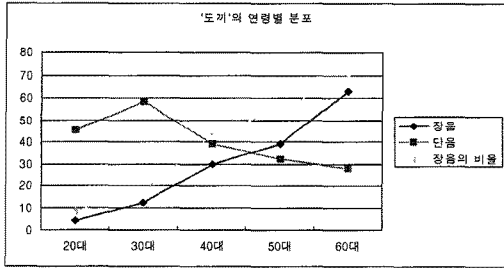
<그림 10> '대천'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1.6 도끼

'도끼'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단음 > 장음 순서로 답변이 나왔지만 50대와 60대 집단에서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장음의 비율을 보면 앞의 예들과 마찬가지로의 우상향 그래프를 목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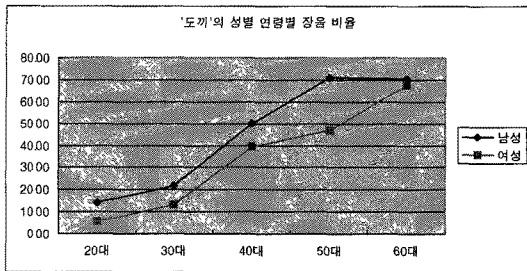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48	78	70	4 (2/2)	12 (7/5)	30 (14/16)	39 (17/22)	63 (38/25)
단음	202	74	128	45 (12/33)	58 (25/33)	39 (14/25)	32 (7/25)	28 (16/12)

<표 7> '도끼'의 성별, 연령별 분포



<그림 11> '도끼'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12>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60대를 제외한 각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가 보였으며, 남성의 선호도가 여성의 것에 비해 더 높았는데 특히 50대에서 가장 격차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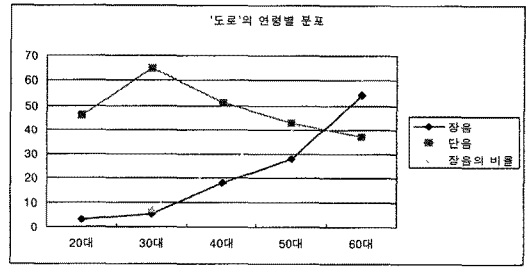
<그림 12> '도끼'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1.7 도로(道路)

'도로'(道路)에서 전체적으로는 위의 '김밥'과 아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여전히 60대 집단이 나머지 연령대 집단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장음의 비율을 보면 앞의 예들과 마찬가지로의 이상향 그래프를 목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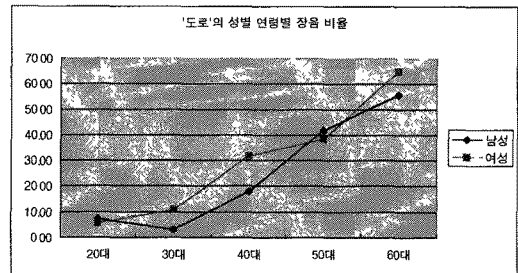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08	47	61	3 (1/2)	5 (1/4)	18 (5/13)	28 (10/18)	54 (30/24)
단음	242	105	137	46 (13/33)	65 (31/34)	51 (23/28)	43 (14/29)	37 (24/13)

<표 8> '도로'의 성별, 연령별 분포



<그림 13> '도로'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14>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30대 남성이 전체 경향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대와 5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가 보였는데 40대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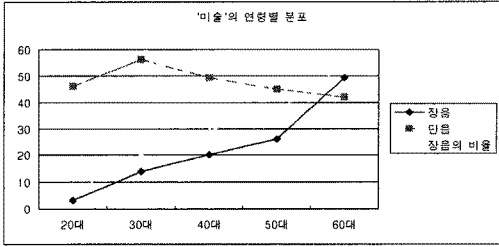
<그림 14> '도로'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1.8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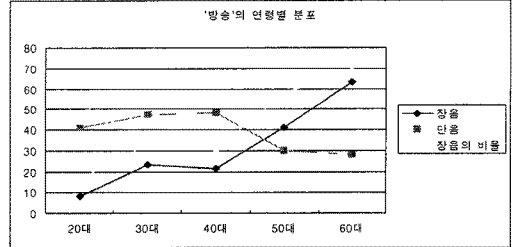
'미술'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단음이 우세한데 60대 집단에서만 반대로 나타났다. 여전히 장음의 비율이 나이 든 세대로 갈수록 높아짐을 <그림 15>에서 알 수 있다.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12	47	65	3 (1/2)	14 (4/10)	20 (7/13)	26 (10/16)	49 (25/24)
단음	238	105	133	46 (13/33)	56 (28/28)	49 (21/28)	45 (14/31)	42 (29/13)

<표 9> '미술'의 성별,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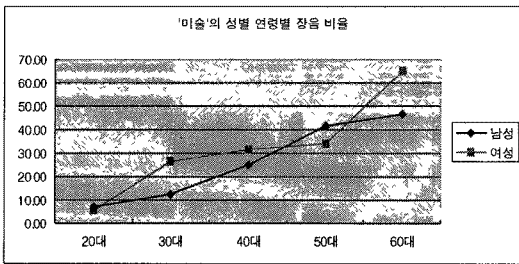


<그림 15> '미술'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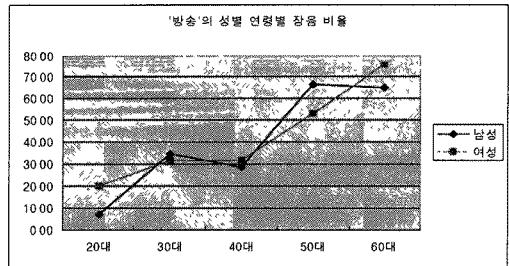
<그림 17> '방송'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16>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가 보였으며 60대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가 가장 컸다.



<그림 16> '미술'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18>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는 30, 4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가 보였다.



<그림 18> '방송'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1.9 방송

'방송'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단음이 우세한데 50, 60대 집단에서만 반대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나이 든 세대로 갈수록 장음 비율이 높아졌다.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56	71	85	8 (1/7)	23 (11/12)	21 (8/13)	41 (16/25)	63 (35/28)
단음	194	81	113	41 (13/28)	47 (21/26)	48 (20/28)	30 (8/22)	28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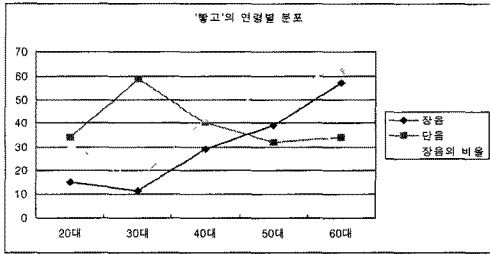
<표 10> '방송'의 성별, 연령별 분포

2.1.10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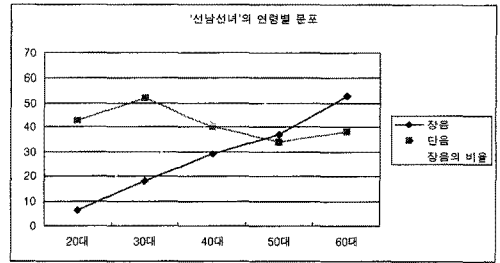
'광고'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단음이 우세한데 50, 60대 집단에서만 반대로 나타났다. 20대 집단의 응답에서 장음의 비율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높은데, 이를 예외로 삼으면 나이 든 세대일수록 장음 비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51	73	78	15 (7/8)	11 (4/7)	29 (15/14)	39 (16/23)	57 (31/26)
단음	199	79	120	34 (7/27)	59 (28/31)	40 (13/27)	32 (8/24)	34 (23/11)

<표 11> '광고'의 성별,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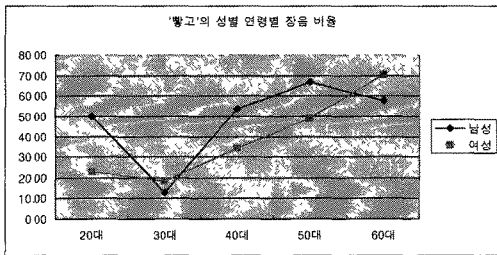


<그림 19> '향고'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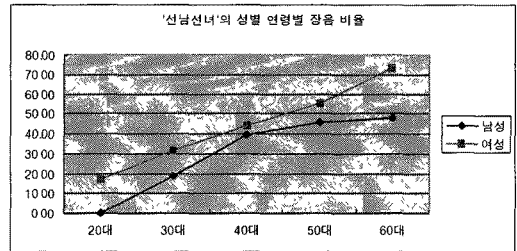
<그림 21> '선남선녀'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20>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20대에서의 일탈이 주로 남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 격차를 볼 수 있다.



<그림 20> '향고'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22>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남녀 모두 전체의 경향에 어긋나지 않는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장음의 비율을 높게 보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 22> '선남선녀'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1.11 선남선녀

'선남선녀'에서는 전체적으로 단음 답변이 우세하게 집계되었는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장음 답변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목격된다. 그래서 50, 60대 집단에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43	54	89	6 (0/6)	18 (6/12)	29 (11/18)	37 (11/26)	53 (26/27)
단음	207	98	109	43 (14/29)	52 (26/26)	40 (17/23)	34 (13/21)	38 (2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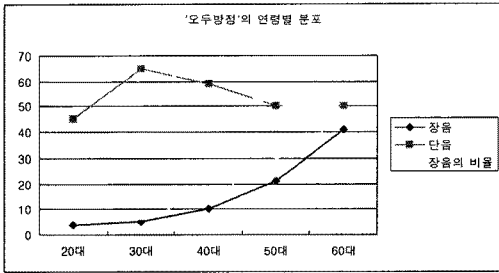
<표 12> '선남선녀'의 성별, 연령별 분포

2.1.12 오두방정

'오두방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단음>장음' 순서이나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장음의 숫자가 늘어났다. 그 결과 <그림 23>처럼 장음의 비율을 나타내는 선이 우상향 형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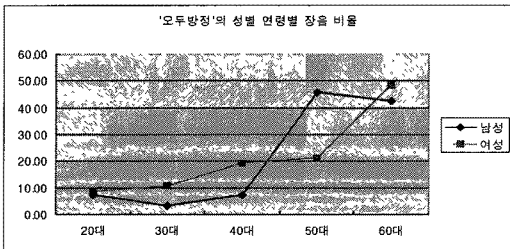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81	38	43	4 (1/3)	5 (1/4)	10 (2/8)	21 (11/10)	41 (23/18)
단음	269	114	155	45 (13/32)	65 (31/34)	59 (26/33)	50 (13/37)	50 (31/19)

<표 13> '오두방정'의 성별, 연령별 분포



<그림 23> '오두방정'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24>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남녀 모두 전체의 경향에 어긋나지 않는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성별 격차가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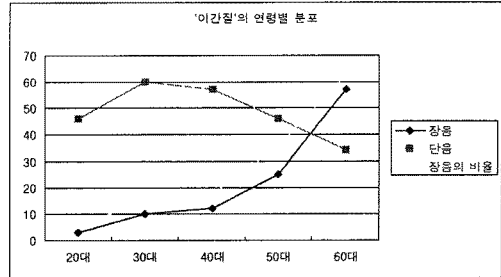
<그림 24> '오두방정'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1.13 이간질

'이간질'에서는 전체적으로 단음이 우세한데 60대 집단에서만 반대로 나타났다. 장음의 비율은 나이 든 세대로 갈수록 급격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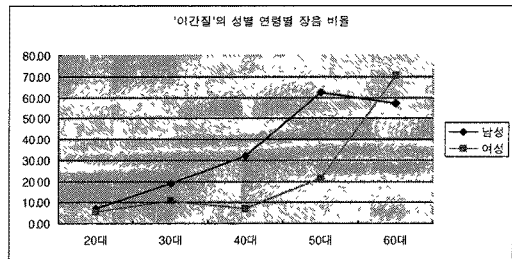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07	62	45	3 (1/2)	10 (6/4)	12 (9/3)	25 (15/10)	57 (31/26)
단음	243	90	153	46 (13/33)	60 (26/34)	57 (19/38)	46 (9/37)	34 (23/11)

<표 14> '이간질'의 성별, 연령별 분포



<그림 25> '이간질'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26>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남녀 모두 전체의 경향에 어긋나지 않는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20대에서는 남녀간 장음 비율에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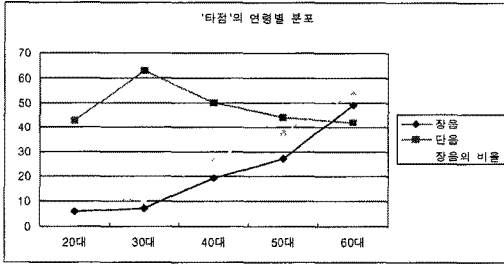
<그림 26> '이간질'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1.14 타점(打點)

'타점'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단음>장음' 순서로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그 반대의 결과로 수렴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60대에서는 '장음>단음' 순서로 역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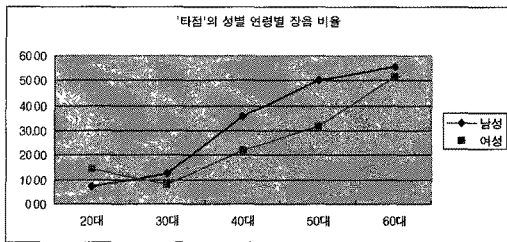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08	57	51	6 (1/5)	7 (4/3)	19 (10/9)	27 (12/15)	49 (30/19)
단음	242	95	147	43 (13/30)	63 (28/35)	50 (18/32)	44 (12/32)	42 (24/18)

<표 15> '타점'의 성별, 연령별 분포



<그림 27> '타점'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28>에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남녀 모두 전체의 경향에 어긋나지 않는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20대 여성이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남성의 장음 비율이 전반적으로 여성의 장음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8> '타점'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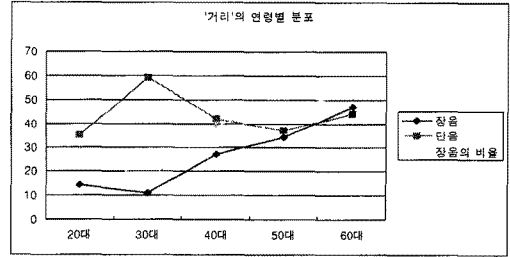
2.2 기저 단음의 경우

2.2.1 거리

'거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단음>장음 순서로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60대 집단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장음>단음 순서로 답변이 이루어졌다. 20대에서 장음의 비율이 특별히 높아진 것을 제외하면 어느 경우처럼 나이 든 연령층으로 갈수록 장음 비율이 높아진다는 일반화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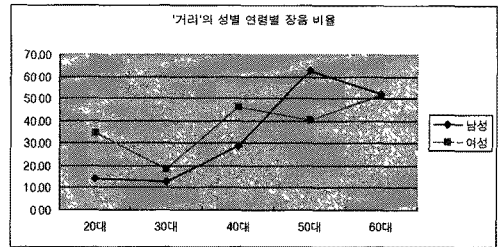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33	57	76	14 (2/12)	11 (4/7)	27 (8/19)	34 (15/19)	47 (28/19)
단음	217	95	122	35 (12/23)	59 (28/31)	42 (20/22)	37 (9/28)	44 (26/18)

<표 16> '거리'의 성별, 연령별 분포



<그림 29> '거리'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30>과 같다. 이를 통해서 20대의 장음 비율이 높은 것이 여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의 장음 비율이 특별히 높아서 각 장음 비율 곡선이 비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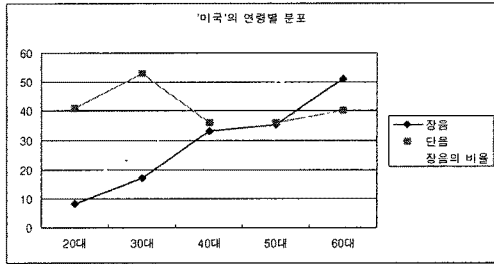
<그림 30> '거리'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2.2 미국

'미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단음>장음 순서로 답변이 집계되었다. 그런데 연령대별 답변을 보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장음>단음 순서로 수렴하는 현상이 목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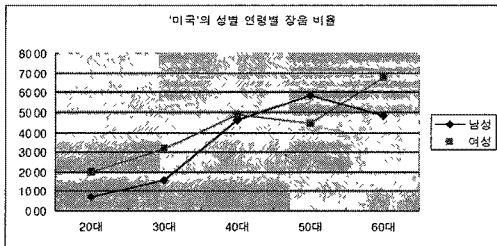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44	59	85	8 (1/7)	17 (5/12)	33 (13/20)	35 (14/21)	51 (26/25)
단음	206	93	113	41 (13/28)	53 (27/26)	36 (15/21)	36 (10/26)	40 (28/12)

<표 17> '미국'의 성별, 연령별 분포



<그림 31> '미국'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32>와 같다. 60대 남성의 장음 비율을 제외하면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이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우상향 곡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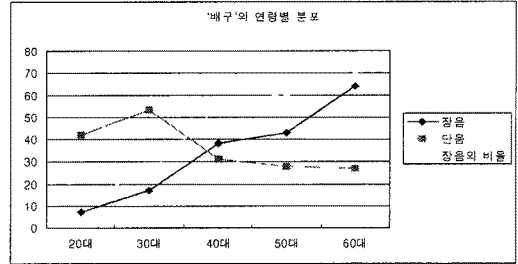
<그림 32> '미국'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2.3 배구

'배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장음과 단음의 비율이 비슷한데, 20, 30대 집단에서는 단음이 많게,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장음이 많게 응답하였다. 장음이 차지한 비율은 나이 든 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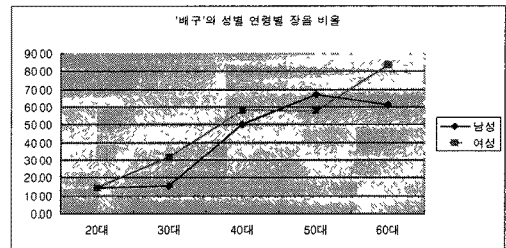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69	70	99	7 (2/5)	17 (5/12)	38 (14/24)	43 (16/27)	64 (33/31)
단음	181	82	99	42 (12/30)	53 (27/26)	31 (14/17)	28 (8/20)	27 (21/6)

<표 18> '배구'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분포



<그림 33> '배구'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34>와 같다. 그래프를 보면 60대 남성의 반응이 전체의 경향을 거스르는 점을 빼면 우상향 곡선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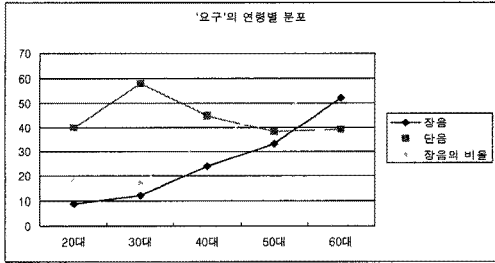
<그림 34> '배구'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2.2.4 요구

'요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단음이 우세한데 60대 집단에서만 반대로 나타났다. 나이 든 세대로 갈수록 장음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다른 예들과 마찬가지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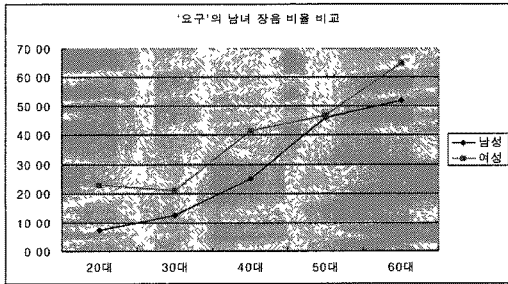
응답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장음	130	51	79	9 (1/8)	12 (4/8)	24 (7/17)	33 (11/22)	52 (28/24)
단음	220	101	119	40 (13/27)	58 (28/30)	45 (21/24)	38 (13/25)	39 (26/13)

<표 19> '요구'의 성별, 학력별, 연령별 분포



<그림 35> '요구'의 연령별 분포

성별 연령별 장음의 비율은 <그림 36>과 같다. 그래프를 보면 50대에서만 성별 격차가 보이지 않고 나머지 연령층에서 성별 격차가 크다. 남녀 각각 우상향 곡선을 보이는 점은 마찬가지로이다



<그림 36> '요구'의 성별 연령별 장음 비율

3. 전체 화자의 경향

지금까지는 연령별 장단 변이를 나타내는 어휘의 구체적인 변이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연령별 변이를 보이지 않는 나머지 단어는 어떤지를 알아보겠다. 이들 나머지 단어가 연령별 변이를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장단의 소실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1 기저 장음의 경우

조사 단어 28개 중 장음으로 발음한 비율이 50%를 넘는 단어는 '비일비재'와 '장국', '대천' 세 단어뿐이었다. 이 중에서 '비일비재'만이 약 65%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을 뿐 '장국'과 '대천'은 55%와 50%로 반 정도만이 장음으로 발음하고 있었다. '비일비재'의 장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 같은 모음 /i/가 연달아 나오면서 첫 음절이 일종의 모음 충돌 회피의 일환인 /j/의 삽입 때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개나리', '경복궁', '경품', '대학생', '수학', '영등포', '오로지', '우산' 등 8개 단어는 장음으로 발음되는 비율이 채 20%를 넘지 않았다. '검문검색', '검찰', '김밥', '노발대발', '도끼', '도로', '미술', '방송', '산보', '선남선녀', '오두방정', '이간질', '타점' 등 13개 단어는 20%에서 50%까지의 장음 선호도를 보인 단어들이다.

동사 '넣다'와 '뺏다'의 활용형의 경우 활용형의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될 경우 어간에 기저 장음이 그대로 보존되나 활용형의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될 경우에는 어간이 단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현재도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뺏다'와 '넣다'의 활용형의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활용형 '넣으면', '뺏으니'의 제1 음절이 100% 가까이 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활용형의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활용형인 '넣지', '뺏고'의 경우에는 각각 36%와 43%의 장음 선호도를 보였다. 이는 용언 어간의 기저 장음이 단음화되어 가고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서울말에서 장단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는 그간의 관찰이 적어도 조사 대상 어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어휘마다 장단 구별의 정도차가 다르다. 이는 정명숙·황국정(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3.2 기저 단음의 경우

이번 조사에 사용된 기저 단음 12개의 단어의 현실 발음을 검토한 결과 '거리', '미국', '요구' 등 3개 단어는 350명의 체보자 가운데 약 40% 정도가 장음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정도의 선호도라면 기저 단음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한다. 나머지 9개 단어의 경우는 장음 선호도를 보인 체보자의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놓다'는 기저형이 단음이므로 전통적으로는 활용형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되든, 모음으로 시작되든 모두 단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단어이다. 실제로 이 단어의 장단을 조사해본 결과, 모음으로 시작되는 활용형 어미 '-아'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단음으로 실현이 되었으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활용형 어미 '-고'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20% 정도만이 장음으로 실현됨을 볼 수 있었다.

4. 결론

서울말의 장단음은 젊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구분되지 않아서 결국 기저 장음이 사라지고 기저 단음화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현상이 연령 이외의 다른 사회언어학적 변수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이다

본고에서는 무작위 추출한 기저 장음 단어의 경우 28개 중 14개, 기저 단음의 경우 12개 중 4개가 사회언어학적 변이 중 하나인 연령별 변이를 보임을 살펴 보았다. 같이 고려한 성별 변수는 이번 조사에서 장단 구분에 작용하지 않았다. 즉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장단음의 실현에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않았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던 연령별 변이는 나이 든 세대대로 갈수록 장음 응답의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기저 장음 단어 14개에 대한 화자 전체 응답에서 단음 응답이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 집단은 일관적으로 장음 응답을 우세하게 보여서 장단 구분의 전통성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이 기저 장음에 있어서는 통설에 따라서 당연히 나타나리라고 예측하였던 것인데 반해, 기저 단음 단어에 있어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의외의 결과였다. 즉 기저 단음 단어 4개에 대해서 전체 응답이 단음 우세였는데 60대 이상 집단에서 장음 우세 응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말의 장단 구분이 60대 미만뿐 아니라 60대 이상의 노년층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조사의 결과만을 보면 노년층으로 갈수록 장음을 구사하는 화자 비율이 높아지지만 단어간 변별성은 결여되어 있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기저 장음이 기저 단음으로 바뀌어서 기저 장음은 사라져가는 추세를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차후 이번보다 더 폭넓은 조사 대상 어휘와 제보자를 취하는 조사가 있어서 서울말의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드러내 주기를 바라며, 더불어 학력, 계층 등 다른 사회언어학적 변수에 대해서도 연구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1] 김선철, 표준 발음 실태 조사II, 국립국어연구원, 2003
- [2] 배주채,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1996 I. 서론
- [3] 李崇宁, “현대 서울말의 악센트 고찰”, 국어학 논고, 동양출판사, 이승녕 국어학 선집 3(1988, 민음사)에 재수록.
- [4] 이호영, 국어음성학, 태학사, 1996.
- [5] 정명숙·황국정, “국어 한자어의 장단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1)”, 어문논집, 42, 민족어문학회, 2000.
- [6] 조남호,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2.
- [7]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